

전남도, 철도망 개선 박차...제2호남·전라선 고속철 본궤도

‘철도 르네상스 원년’ 선포...내년 1조 원대 예산 확보 목표
‘무늬만 고속철’ KTX전라선,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에 총력

전남도가 올해를 ‘철도망 르네상스 구축’ 원년으로 정해 열악·노후한 지역 철도 교통 체계를 개선하는 데 박차를 가한다.
전남도는 오는 2022년에 철도망 개선에 필요한 1조 원대 예산을 확보하고 전라선 KTX를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철도 기반시설 구축·개선 사업비로 7079억 원을 투입하는 등 이른바 ‘철도망 르네상스 구축’ 원년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주요 추진 사업은 ▲2단계 호남고속철 ▲남해안 고속전철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

화 ▲전라선 고속철도화 등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광주송정~나주~무안국제공항~임성~목포역까지 총 연장 77.8km 구간에 고속 철도 궤를 놓는 것이다.
총 2조 5759억 원 규모이며 올해 4240억 원, 내년에는 80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포 임성~보성 간 남해안 고속전철사업은 철로 지방공사 공정율이 90%에 달하며, 궤도 설치와 전철화 공사를 거쳐 내년 말 개통할 예정이다.
광주송정~순천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총 연장 구간 122.2km)도 기본계획 수립과 동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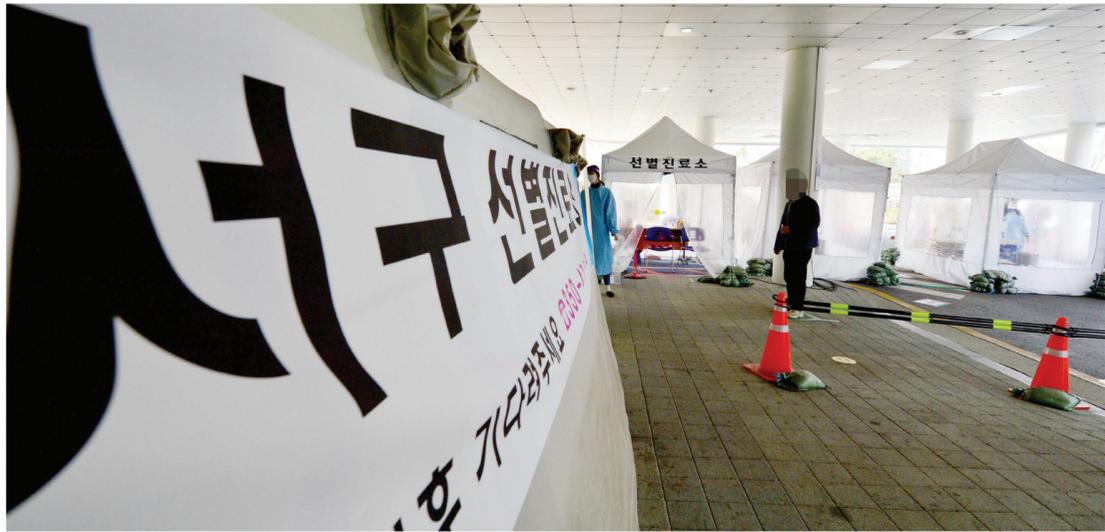
남해안선과 연결되는 보성~순천 구간을 우선 시공할 수 있도록 착공에 필요한 297억 원을 확보했다.
총 투입 예산 1조7703억 원 중 3000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전라선(전북 익산~전남 여수) 고속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또 대도시권 연결 광역철도 개선을 위해 나주시·화순군 의견을 수렴, 세부 노선을 정했다. 이러한 안을 정부의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고자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21세기 전남의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고자 한다. 민원 해결과 행정절차 지원을 위한 호남고속



장성역에 정차한 호남고속철도.

철도 2단계 지원 협의체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확보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설 명절에도 문 연 선별진료소 설 명절 당일인 지난 12일 오전에도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시민 발걸음이 잇따랐다.

광주 광산구, 폐업 자영업자 사업정리비용 지원

광주 광산구는 15일부터 폐업(예정) 자영업자의 사업정리비용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전하

게 폐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광산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관할 철거 지원(35만 원 내외), 점포 철거비 지원(최대 200만 원), 사업정리컨설팅(일반·세무·

부동산)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광산구 사업장에서 60일 이상 영업을 하던 중 폐업했거나 폐업을 앞둔 자영업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대표와 비영리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안은 광산구 기업경제과 골목상권 활성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형택기자

목포시, 유달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추진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등 다양한 문화유산 보유

목포시는 유달산 일등바위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유달산은 기암괴석이 빚어내는 풍광뿐만 아니라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일괄(보물 제2011호), 달성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전남도 유형문화재 제228호)이 있다.

또 목포시사(전남도 지방기념물 제21호)와 목포 오포대(전남도 문화재자료 제138호) 등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을 자랑한다.

시는 유달산을 명승으로 지정해 동식물을 보호하고 향후 보수·관리 등에 국가지원을 받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은 오는 3월까지 진행되며, 유달산의 역사와 민속 등 인문환경은 물론 식생과 경관 등 자연환경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시는 용역을 통해 명승 지정에 대한 가치와 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에 명승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목포의 상징 유달산은 노령산맥의 마지막



흰눈 덮힌 유달산.

막 봉우리로 면적 140ha, 높이 228.3m의 비교적 작고 낮은 산이다. 다도해를 배경으로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서 있어 오랫동안 목포의 대표적인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유달산은 돌레길에서 다도해 경치를 바라보며 체력적으로 크게 부담되지 않는 산행을 즐길 수 있다. 고하도를 바다 위로 오갈 수 있는 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유달산 경관을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유달산처럼 도심 안에 위치해 다양한 만족감을 주는 산은 흔하지 않다”면서 “유달산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받는 사랑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가꾸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정수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